



##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 Media Self-Portraits during a Pandemic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and Hate

The Impact of 'Hate-Promoting Expression' in COVID-19-related News Coverage on Users \*

**Siyoung Pyo\*\***

Ewha Womans University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Jiyeong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Amid criticism that the media, which should avoid hate above all else in the disaster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using expressions that encourage hate, This study examined how hate-promoting expressions in COVID-19-related media reports affect users' "hate inducing" and "user effect"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trollability" and "responsible attribution". As a result, expressions that promote hate in the press has been shown influence users in terms of promoting hate, trust toward individuals and society, attitudes and actions on the issue, and invoking immediate negative response. In particular, hate-promoting expressions in media reports encouraged users to feel more "hate" than "biased and prejudiced", and users perceived 'action' to have a greater effect than "attitude," from which could be inferred that users who encountered hate-promoting expressions were both victims and at the epicenter of hate speech.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hate-promoting speech has a greater impact on the decline "individual trust" toward neighbor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that have a closer psychological and social distance compared to a more generalized understanding of trust. The results suggest that hate spee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and KBS' 2020 New Scholars and Follow-up Generation Research Support Project. (본 연구는 '한국언론학회·KBS의 2020년도 신진학자와 학문 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임)

\*\* siyoungpyo@naver.com, 1st author

\*\*\* trustmejy@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solve problems in disaster situations where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Meanwhile, “hate-promoting” and “user effect” show a comprehensive difference between the four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trollability” and “responsible attribution.” Both dependents were less likely to be controlled, and when the responsible return was directed at the “group” rather than the “person” it showed greater influence,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However, the opposite was seen in the highly controllable situation,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social atmosphere and public opinion at a time when the “moral framework” was applied to certain issues, making it difficult to express criticism toward the target.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media workers need to comply with stricter and more rigorous journalism principles, especially in disaster situations, and seek fundamental solutions by developing ‘infectious reporting guidelines’ based on these findings. In the midst of a pandemic where there is a high level of reliance on news coverage,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hate speech than in the early stages of an outbreak, and stricter fact-checking and verification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guidelines when responsible attribution applies to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in an issue with no moral framework.

**Keywords:**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hate-promoting expression, controllability, responsible attribution, reporting guidelines

# 1. 서론

미디어의 발전으로 '소통'과 '표현'의 창구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크게 신장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타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적대적인 혐오표현 역시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83%가 넘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비율이 77.9%이고,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로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49.8%로 과반수에 가까웠다. 즉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온라인 뉴스를 기반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덧 뉴스가 혐오표현 생산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언론보도 내에서 발견되는 혐오표현의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경험 사례를 연구한 김경희·조연하·배진아(202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인터넷 포털 뉴스를 이용하던 중 '빽대거리 페미니스트', '꿀페미', '페미년' 등과 같이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과 더불어 노인을 회화화하는 '뜰탁충', 조선족에 대한 '차오포비아' 등의 혐오표현을 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스스로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지역혐오 댓글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댓글이 많았는데, '흥어'라는 용어를 빗대어 조롱하거나(장소연, 2017), 특정 뉴스에 해당 지역명을 언급하는 유형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지역이나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승, 2018). 더욱이 최근 혐오표현은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왔는데, 가령 사람들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맘충', '지방충'과 같이 '충(蟲)'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표현함으로써,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혐오표현을 신조어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와 같이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조선족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대상이 확진자 등 일반 이용자 개개인으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추세다.<sup>2)</sup> 또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경로는 뉴스 자체보다는 해당 뉴스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1) 류병화 (2018.9.7.) “ [혐오를 혐오한다①] 맘충-뜰탁충-한남충...끝없이 피어나는 '악의 꽃' ”,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

2) 배민욱 (2020.5.19.) “코로나19시대 혐오도 확산...서울시, 혐오표현 실태조사”,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

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댓글과 더불어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언론이 앞장서 사용하고 있어, 언론이 오히려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3)</sup>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는 개인의 성적지향·사상·신념과 더불어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sup>4)</sup>로 분류되는 질병 정보가 감염이라는 지극히 예민한 전과 상황과 결합하여 그 증폭·확산 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대상에 대한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와 일반인들에게 모두 민감한 이러한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보호를 전제로 언론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앞다퉀 확진자 혹은 관련 집단에 대한 자극적인 혐오 조장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sup>5)</sup>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 동안 언론에서 나타난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혐오 조장 표현은 해당 집단의 감염병<sup>6)</sup> 전파에 대한 침묵과 회피로 이어져 결국 방역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sup>7)</sup> 나아가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보도 중에서는 질병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귀속시키는 책임귀인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는데(박주현, 2020; 표시영, 2020), 언론이 특정 짓는 책임귀인에 혐오 조장 표현까지 결합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제 인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긴급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자성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했고, 해당 준칙에는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오윤경 외, 2020), 코로나19를 다루는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계속되고 있다.

3) 문현숙 (2020.2.11.) 혐오·공포 조장에 감염된 언론, 재난 앞에서도 평가르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27870.html>

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미나 (2020.1.30.) “언론노조 ‘신종 코로나’ 혐오 유발 보도 자체 긴급 지침”, 〈PD 저널〉,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61>

6) 일반적으로 ‘감염증(병)’은 병리학적 용어이고 ‘전염병’은 전파성에 중점을 둔 역학적 용어라고 되어 있지만,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질병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영방송 및 신문사에서도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송경화·서혜미 (2020.5.10.) “일부 언론 ‘성소수자 혐오’보도, 방역 방해하고 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44308.html>

따라서 정확하고 실증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이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 같은 가치판단이 태도와 행동으로까지 확장되어 ‘악성 댓글’ 혹은 ‘혐오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한다. 앞서 살펴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2.3%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서(27%)’ 혐오표현을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9)에 따르면 이러한 혐오표현이 향후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2%에 육박했다. 이렇듯 혐오표현은 현재 다양한 사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혐오표현이 이용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선열·김학수, 2002; Ybarra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내 혐오표현 문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김지수·윤석민, 2019; 김현·손병우, 2020; 정수영·이영주, 2015; 홍지아, 2017), 혹은 혐오표현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이용자 효과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많다(김찬중, 2019; 조운용·임영호·허운철, 2016; 한희정·신정아, 2019). 아직 지금의 신종 감염병 전파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양상과 이것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 팬데믹(pandemic)이라는 유례없는 상황까지 더해져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감염병이라는 재난보도에 있어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보도에서의 혐오표현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언론보도에 나타난 혐오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난보도 내 혐오표현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관련 기존 문헌 연구

### 1) 혐오 조장 표현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증오·기피의 감정을 특정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혐오표현이라고 이해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사회 문제로서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는 이보

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민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이승현 외, 2019).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는 점차 포괄성을 띄는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나 다수가 아닌 '소수(non-dominant)'의 집단 등에게 가해지는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에 속하지 못한, 혹은 다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정 표현으로 집단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을 격하시켜왔다(박미숙·추지현, 2017).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공론화된 것 역시 주로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소수의 집단을 향한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의견 표출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여성 혐오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주로 폄박을 받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으며(조소영 외, 2016), 이는 대체로 여성,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특정 인종 등에 집중되어 나타난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감염병 관련 혐오 대상은 주로 성 소수자나, 중국인, 신천지 종교집단 등과 같이 국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소수에게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물론 혐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확장되면서 혐오표현 대상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sup>8)</sup> 분명한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은 사회 구조적인 차별의 역사를 전제한다는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표현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타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보다 손쉽게 유통되고 확산되면서(홍주현·나은경, 2016; 김수아, 2019),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김지혜, 2019), 이에 따라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집단'은 혐오 대상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왔다(홍성수 외, 2016; 김경희 외, 2018).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혐오의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시켜 그 효과를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접근하거나, 역사 혹은 사회 구조적 측면과 연결시킨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홍성일·김민정·김수

---

8) 박승호(2019)에 따르면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기에, 남성이나 기독교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권력 관계가 바뀐다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동후, 2020). 이와 관련하여 박용숙(2018)은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종·민족·종교·성별 및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인한 적대적 표현행위”라고 함으로써 집단에 초점을 맞춰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명예 혹은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물이 증가하면서, 혐오표현의 대상을 개인의 속성에 맞춰 정의하는 경우도 늘어났다(윤성옥, 2019). 하지만 이 경우도 개인의 속성이란 것은 하나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본능적 특성을 의미하므로 집단을 포괄하는 접근법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통상 혐오표현의 대상은 개인과 집단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해영, 2015; 이승선, 2018; 유의선, 2019, 이정님, 2019).

이렇듯 대상은 혐오표현 정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이와 더불어 그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특징도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왔다. 고흥석(2019)은 혐오표현이 여타의 표출행위와 구분되는 주요 핵심은, 바로 해당 표현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비난·적의·증오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을 담아 이정님(2019)은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지니는 또는 지닌 것으로 인지되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적대감’을 외부에 드러내는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렸다. 이와 유사하게 박아란(2020.9)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적 표현’ 외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 및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차별을 선동하는 것을 혐오표현의 개념적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즉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은 수많은 표현 중에서도 이용자로 하여금 편견 및 선입견, 적대감, 증오 등을 유발하거나 공고히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김수아, 2015; 정다영, 2018). 나아가 혐오표현은 증오나 분노라는 보다 강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이승선, 2018; 이주영, 2015),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혐오표현은 그 해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이정님(2019)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과 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미디어라는 수단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혐오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단순히 혐오를 표현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표현까지도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포섭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다수의 학술 논문에서 나타났는데 홍성수(2019)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과 그에 따른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까지 혐오표현으로 봤으며, 이승선(2018)은 “지역·민족·인종·국적·종교·장애·성별·성정체성·연령 등 일정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모멸·

혐오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선동·선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혐오표현뿐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까지 모두 넓은 의미의 혐오표현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김경희·조연하·배진아(2020)의 연구에서도 혐오표현은 표현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정의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역시 혐오표현의 한 맥락에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언론은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해당 표현이 이용자로 하여금 혐오를 인식하게 하거나 직접 혐오표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에 특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혐오표현이 생성되는 조건: 상황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과 언론보도의 책임귀인(Responsible Attribution)

지금의 신종 감염병 전파라는 특수한 상황은 새로이 나타나는 언론보도의 형태 및 내용,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및 영향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메르스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은 국내에 처음 유입된 감염병 전파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미디어 연구들은 언론보도의 메르스 감염병과 전파 현상을 다루는 보도 행태와 내용 즉, 프레임(권신혜, 2016:4; 박건숙, 2016 등)이나 담화분석(김병건, 2015; 김용, 2016 등) 등을 통해 구체적인 뉴스의 내용을 다루어 문제를 밝히는데 집중되었다. 특히 김병철(2019)의 메르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메르스 정보 검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언론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공중의 위협에 대한 인지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보도준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감염병 전파 상황 속의 미디어, 특히 그중에서도 언론보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에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문제를 팩트체크 기사와 해설 기사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정은령·최지수·박유진, 2020)와 언론이 형성하는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해당 뉴스들에서 ‘불안’, ‘공포’, ‘우려’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고, 언론이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연구(김태중, 2020)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의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뉴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그릇된 보도



행태가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확실한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시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혐오 조장과 관련하여 손달임(2020)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뉴스 제목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초점화하거나 위험 상황을 전쟁에 은유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감염자나 감염원, 감염경로에 대한 서술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배척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혐오적 시선을 부추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 전파와 혐오표현이 생성되는 상황적 요인을 엮어서 연구한 일부 논의들에서는 상황의 ‘통제가능성’을 중요한 변인에 포함시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통제 가능 여부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등이 달라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마다 전파에 대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가 어려울 것을 예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바 있고, 전파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해외에서는 감염 속도와 규모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금지나 국경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예방 및 대응방안 방향에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에 따른 결과를 일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개개인에게도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 일반 감염병은 대부분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쿵즈, 1999; 홍주현·나은영, 2016),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병변 자체에 대한 정보(진단, 치료, 예방 등)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발생 초기는 통제가능성이 낮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나아가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통제가능성과 같은 요인은, 일반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와이너(Weiner, 2006)는 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야기된 부정적 상황은 분노, 비난, 방치와 보복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야기된 부정적 상황은 동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특정 상황과 연계된 혐오 조장 표현은 해당 상황의 통제가능성에 따라

9) 박정식 (2020.5.24.). 수년마다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 정부 역할론 대두, <헬스코라이뉴스>, [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앞선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국 혐오표현의 양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어 왔고, 대체로 혐오표현은 특정 속성을 가진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투사적 혐오'가 문제가 되어 왔다(김민정, 2020).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적 이슈였던 혐오표현 문제를 되짚어 보면, 여성·성소수자·특정 인종 등을 대상으로, 일부의 일 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을 빌미로 해당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 일탈로 야기된 감염 사태에 대해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를 비난하고, 혐오에까지 이르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면 불 특정 다수가 이에 노출되고, 나아가 주변의 혐오 대상과 관련된 특정 개인에게까지 혐오가 투영 될 수 있으며(강준만, 2016), 사회적으로 '공공의 적'을 양산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이정훈·이상기, 2016). 이는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표현 일부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파의 책임을 묻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즉 감염병 전파의 '책임귀인'을 따져 그 대상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 구성원 간의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sup>10)</sup>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뉴스 보도에서 책임귀인 판단이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전파 상황의 책임귀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문제의 성격 규정·원인 규명·평가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인식·해석·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성준·유홍식, 2016). 따라서 언론보도에서 책임귀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지, 집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 3)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감염병 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영향: 혐오와 이용자 효과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감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 보다 엄격한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한 보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뉴스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감염병에 대한 혐오 조장 표현들이 되레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1년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10) BBC (2020.3.4.).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BBC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이전에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했던 코로나19 보도준칙에서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중략)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한 것만으로도 언론보도의 혐오 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sup>11)</sup>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민감한 감염병 보도에서 자극적이거나 부정확한 보도 내용은 자칫 전파의 책임귀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여론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혐오표현이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유발하거나 공고히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확인한 바 있다(김수아, 2015; 이수연 외, 2018; 정다영, 2018 등).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에서 나아가, 증오나 분노라는 매우 부정적 감정까지 불러일으켜(이주영, 2015), 대상에 대한 혐오를 생성시키고 있다.

소랄과 빌레위츠, 위니에프스키(Soral, Bilewicz, & Winiewski, 2017)는 혐오표현에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언어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감퇴시키고 혐오표현 대상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노출은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차별과 배척의 가치관과 잣대를 수용하게 되고, 해당 대상에 대한 사고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김병철, 2020). 특히나 공적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 신뢰도가 높은 뉴스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은 대상에 대한 이용자의 혐오가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용자의 ‘인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혐오 조장 표현이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관련 대상 및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동원하는 정보 중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방법은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미디어가 제공하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 상당수는 뉴스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정일권, 2010). 이러한 뉴스의 내용과 형식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전달자가 표현법을 달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인식하는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뉴스 미디어가 규정하는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ennett, 1982; Hartley, 1982). 결국 이러한 뉴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뉴스란 특정 뉴스 틀에 의해 선택되고 특성화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구성

11)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물”이라는 의미로 귀결되며(김훈순, 1998; 박성희·임윤주, 2012 재인용), 뉴스는 생산자들에 의해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 활동인 것이다(Hall, 1982). 그리고 뉴스의 현실 재구성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관련 사건과 쟁점에 대한 사고에 실질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이다(Geis, 1987).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준이 매우 미비하기에 언론보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종’ 감염병은 전문가조차 관련 증상과 영향,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 못하며, 전과 상황 속에서 이를 밝혀 나가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행위는 감염병의 불확실성에서 실체와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적인 일반 이용자들은 뉴스를 통해서 감염병 자체를 이해하고, 감염병에 의해 나타나는 사건과 쟁점을 언론보도가 구성한 현실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뉴스 내용에 근거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심각성을 추측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감염병 전파에 대한 공포 및 불안감 확산에 일조할 수도 있다(이귀옥, 2015).

이용자는 뉴스에서 사용한 표현을 기반으로 사건의 인과 관계와 전말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재구성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해당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부터 나아가 태도와 행동까지도 형성한다. 특히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은 단순히 뉴스 생산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보도 과정에서 “의미를 생성, 재생산, 확대하는 강력한 기계”로 작동함으로써 이용자의 해당 표현의 습득이나 학습뿐만이 아니라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사고방식, 가치체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주행, 2003; 임규홍, 2003 등).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찍이 리츠(Leets, 2002)는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에 노출된 이용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분노, 외로움,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먼저 겪게 되고, 이러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지속되어,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 노출이 이용자의 가치판단과 사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과 같은 폭력적 메시지에 대한 만성적 노출이 이용자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까지 확산된다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폭력적 메시지가 부정적 형태의 행동에 대한 주요 환경적 선행 중 하나로 간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Allen, Anderson, & Bushman, 2018 등). 특히 이바라 등(Ybarra et al., 2008)은 폭력적인 미디어 메시지 노출은 폭력을 옹호하

는 태도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밝혀내어, 메시지 작성자의 의도적인 표현대로 사안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형성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멀런과 스미스(Mullen & Smyth, 2004)는 혐오표현은 해당 대상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그 폭력을 목격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폭력이 재생산되도록 함을 강조했다. 이는 혐오표현이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안의 혐오에 동조하는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영옥, 2008; Douglas & Wildavsky, 1982 등).

한편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개개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우리 사회를 위기에 직면토록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공동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뿐만이 아니라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손꼽고 있다.<sup>12)</sup> 사회적 자본 차원에서 신뢰에 대해 연구한 푸트남(Putnam, 2000)은 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결국 신뢰이며,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공동체 지지와 참여가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미디어의 혐오표현이 이용자가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혐오표현은 관련 대상과 사안에 대한 이용자의 개별적 신뢰 및 일반적 신뢰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개별적 신뢰 훼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Näsi et al., 2015). 또 이수연 외(2018)가 진행한 여성 혐오표현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이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며, 특히 혐오표현의 주체나 대상이 심리적으로 가까울 때뿐만이 아니라 그 거리가 멀 때에도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 효과 차원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에 따른 혐오 조장 표현에 따라, 이용자의 '혐오 조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에 따른

---

12) 동아사이언스(2020.9.9.). 코로나19 사태 8개월...적신히 커진 '신뢰사회', 쌓인 '피로'.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630>., 권혜숙(2020.10.29.). "코로나가 낳은 분노·낙인 짝가... 상호신뢰 바타나는 한국".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2466&code=11131100> 등.

혐오 조장 표현에 따라, ‘이용자 효과(감정·인식·신뢰·태도·행동)’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연구방법

#### 1) 연구 변인 및 측정

##### (1) 혐오 조장 표현에 의한 이용자의 혐오 조장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신종 감염병 전파처럼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은 뉴스 안에서 표현될 때(최선열·김학수, 2002),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폭된다. 일반적으로 혐오에 대한 세부 정의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정리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이정념(2019)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혐오’를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지니는 또는 지닌 것으로 인지되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적대감’으로, 그리고 ‘표현’을 ‘누군가가 지니는 의견이나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모든 행위’로 해석한다면, ‘혐오표현’이란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지니는 또는 지닌 것으로 인지되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적대감을 외부에 드러내는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 역시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의 대상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그리고 적대감 등을 내포하고, 혐오 조장 표현은 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공고히 하며(김수아, 2015; 정다영, 2018; Soral, Bilewicz, & Winiewski, 2017), 나아가 증오나 분노라는 보다 강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이승선, 2018; 이주영, 2015). 즉 혐오 조장 표현을 접한 이용자의 해당 대상과 상황에 대한 혐오 조장은 ‘편견’ 및 ‘선입견’ 그리고 더 나아가 ‘적대감’ 및 ‘분노’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혐오 대상에 대한 인식과 대상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차별 인식(Awareness of Discrimination)’으로, ‘적대감’과 ‘분노’를 ‘혐오 감정(Emotion of Hate)’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을 접한 이후, 해당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혐오는 ‘차별 인식’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혐오 감정’이 증가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차별 인식의 경우 연구자가 언론보도에서 선택한 각각의 혐오 조장 표현에 대해서 ‘위 기사 중 00(혐오 조장 표현)의 표현을 접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이 증가했다’로, 혐오 감정은 ‘위 기사 중 00(혐오 조장 표현)의

표현을 접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적대감 및 분노가 증가했다'로 구성되었으며, 혐오 조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판단을 위해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이를 측정하였다. 혐오 조장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로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 )을 이용한 결과, '차별 인식'은 .934, '혐오 감정'은 .939로 나타나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이용자 효과(감정·인식·신뢰·태도·행동)

미디어의 표현은 이를 접한 이용자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2018)는 리츠(Leets, 2002)의 혐오표현이 해당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나시 등(Näsi et al., 2015)의 혐오표현이 미치는 '개별적 신뢰'와 '일반적 신뢰'의 영향, 그리고 이바라 등의(Ybarra et al., 2008) 관련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종합하여, 미디어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해당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Immediate Emotional Response)', '개별적 신뢰(Individual Reliability Dimension)', '일반적 신뢰(General Reliability Dimension)', '태도 및 행동적 차원(Attitude and Action Dimension)'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란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에 노출된 이용자가 단기적 관점에서 느끼는 분노, 짜증,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의미한다(Leets, 2002), 그리고 신뢰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친밀한 대상과의 '개별적 신뢰'와 개인의 네트워크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 '일반적 신뢰'로 나누어 보았다(Putnam, 2000). 나아가 '태도 및 행동적 차원'은 혐오 조장 표현으로 인해서 야기된 부정적인 태도 특히 관련 사안에 대한 외면이나 거부, 그리고 혐오 조장 표현을 학습하여 사용하게 되는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의미한다(김영욱, 2008; Douglas & Wildavsky, 1982; Mullen & Smyth, 2004; Soral, Bilewicz, & Winiewski, 2017 등). 마지막으로 조작 변인인 '책임귀인'과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미디어 내 혐오 조장 표현의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인식 차원의 문항을 추가하였다(〈Table 1〉 참조). 이용자 효과 역시 혐오 조장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Table 1. Factors that Measured the User Effect by Hate-Promoting Expression and Detailed Factor Questions

User Effect	Detailed Factor Question
Immediate Emotional Response	I was angry about the COVID-19 situation and the subject
	I was irritated by the COVID-19 situation and the confirmed patient
	The COVID-19 situation and the fear of the confirmed patient have increased.
Cognition of Responsible Attribution	I think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lies with the person concerned
Cognition of Controllability	I think that the COVID-19 infection and spread was sufficiently prevented by the attention and prevention of the target
Individual Reliability Dimension	I'm afraid there's COVID-19 infection and transmission around me (family, friends, colleagues, neighbors)
	I've lost faith in my surroundings because I'm afraid there's COVID-19 infection and transmission around me(family, friends, colleagues, neighbors)
General Reliability Dimension	I am concerned that my community will be able to respond well to the COVID-19
	I am concerned that our government will be able to respond well to the COVID-19
Attitude Dimension	I want to turn a blind eye to the COVID-19 issue (including targets and circumstances).
	I am repulsed by the COVID-19 issue (including the target and the situation).
Action Dimension	I came to agree with the hate-promoting expression on the news report.
	I ended up using the hate-promoting expression in the news report.

먼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 대상에 대한 화가 났다',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 확진자에 대한 짜증이 났다',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 확진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로 구성되었으며,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인식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한 책임은 해당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통제가능성에 대한 판단인식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는 대상의 주 의와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 개별적 신뢰는 '내 주변(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가 있을까봐 두렵다', '내 주변(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가 있을까봐, 주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로 일반적 신뢰는 '내가 속한 지역 사회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한편, 태도 차원은 '해당 코로나19 이슈(대상과 상황 포함)를 외면하고 싶어졌다', '해당 코로나19 이슈(대상과 상황 포함)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로 행동 차원은 '해당 뉴스 보도에 나온 혐오 조장 표현에 동의하게 되었다', '해당 뉴스 보도에 나온 혐오 조장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로 측정되었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이용자 효과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용자 효과에 속한 변인의 경우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한 결과, 즉각적인 감정 반응 중 '두려움'은 변인들 간 상관관계수가 낮아서, 어떤 변인들과도 공통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아이겐값(eigenvalue)이 1 이상이며(아이겐값 1.913, 설명량 67.43%), 주요인적재값이 .6 이상이고, 부요인적재값이 .4 미만인 항목을 제외한 결과, 총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에는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 대상에 대한 화가 났다'(850),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 확진자에 대한 짜증이 났다'(841),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한 책임은 해당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한다'(816),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는 대상의 주의와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739)의 네 문항이 같은 차원으로 추출되었고, 해당 요인을 '감정 및 인식(Emotion and Cognition)'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내 주변(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가 있을까봐 두렵다'(785), '내 주변(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가 있을까봐 주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777), '내가 속한 지역 사회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772),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759)라는 네 문항이 한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신뢰도(Reliability)'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에는 '해당 코로나19 이슈를 외면하고 싶어졌다'(813), '해당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737), '해당 뉴스 보도에 나온 혐오 조장 표현에 동의하게 되었다'(732), '해당 뉴스 보도에 나온 혐오 조장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704)의 네 문항이 같은 차원으로 분류되어 '태도 및 행동(Behavior and Attitude)'으로 명명한다.

다음으로 이용자 효과 변인의 신뢰도를 크로바흐 알파값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 '감정 및 인식'에 대한 크로바흐 알파값은 .929, '신뢰도'는 .936, '태도 및 행동'은 .942로 높게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2) 실험 설계 및 절차

### (1) 코로나19 감염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은 해당 상황의 통제가능성이 이용자들의 감염병 전파에 대한 인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혐오표현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콤즈(Coombs, 1999)는 해당 상황의 통제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피해의 범주가 개인에게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가를 기준으로 혐오표현 대상을 유형화하였고,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 콤즈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한 홍주현과 나은경(2016)의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통제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사회로 확산되는 '사회 확산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전파는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통제가능성의 정도가 나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통제가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 발병 초기에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의 특징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첫 지역 전파가 나타난 3번 확진자 사례와, 국내 '첫 집단감염' 사태인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례는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보았고(2020년 1월~2월), 이후 질병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단계별 대응책이 작동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인천 학원강사 전파와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는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류하였다(2020년 5월).

## (2) 언론보도의 책임귀인

일반적으로 책임귀인은 사건 또는 상황의 책임이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특히 대상에 대한 증오나 기피의 감정이 발생하는 혐오표현에서는 책임귀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혐오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전파의 책임귀인을 따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규모 감염일 때에는 최초 확진자 개인과 그 이동 경로를, 그리고 대규모 집단 감염일 때에는 해당 집단의 규모 및 특성과 확산세에 집중되어 나타난 경향이 있다. 앞서, 한성준과 유홍식(2016)이 강조한 바와 같이 뉴스에서의 전파 상황에 대한 책임귀인 설정에 따라, 문제의 성격 규정·원인 규명·평가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인식·해석·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언론의 책임귀인이 개인 또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대상에 대한 혐오 조장 표현이 전달된다면, 관련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코로나19 전파 상황의 언론 보도 중, 국내에서 처음 지역 전파가 이뤄진 3번째 확진자

사례와 인천 학원강사 지역 전파 사례는 그 책임귀인을 ‘개인’으로 보고,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과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는 책임귀인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에 따라 분류된 혐오 조장 표현의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Table 2〉 참조).

Table 2. Hate-Promoting Expression Classification(Controllability-Responsible Attribution)

	Low controllability (January to February 2020)	High controllability (May 2020)
Responsible attribution-Person	Third Patient	Incheon Academy Instructor
Responsible attribution-Group	Shincheonji Mass Infection	Incheon Mass Infection

실험자극물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설문지 작성 기간인 7월 30일까지의 인터넷 뉴스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검색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던 주요 사안들 중에서 ‘초기 지역 전파를 일으킨 3번째 확진자’,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인천 학원강사 슈퍼전파자’, ‘이태원 집단감염’을 선정하였다. 실험자극물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사들 중, 혐오 조장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선택하여,<sup>13)</sup> 사건 당 4개의 기사를 편집하여 텍스트 양식의 기사로 재구성하였다.<sup>14)</sup>

### (3) 실험 절차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유사실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험

13) ‘초기 지역 전파를 일으킨 3번째 확진자’ 기사에서 나타난 주요 혐오 조장 표현들로는 ‘활보’, ‘슈퍼 전자파’, ‘28번째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OO녀?’ 등이 있고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기사에서 나타난 주요 혐오 조장 표현들로는 ‘맨바닥 딱따닥’, ‘무더기 감염’, ‘독특한 예배방식’, ‘포교 극성’ 등이 있으며, ‘인천 학원강사 슈퍼전자파’ 기사에서 나타난 주요 혐오 조장 표현들로는 ‘낮과 밤이 다른 강사’, ‘거짓말 강사’, ‘쏘아올린 공포’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집단감염’ 기사들에서 나타난 주요 혐오 조장 표현들로는 ‘코로나 슈퍼 전파’, ‘이태원 클러버’, ‘게이클럽’, ‘활보’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실험자극물은 실제 있는 기사들의 내용 중 각주 14번에서 제시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4~8줄 사이로 발췌한 후, 기사 제목과 함께 제공했다. 예를 들어 통제가능성이 낮고 책임 귀인이 개인을 향하고 있는 기사의 경우 제목이 “강남 활보한 3번 확진자, 슈퍼 전자파 되나... 접촉자 2차 감염”, 기사 내용은 “증상 발생 후에도 서울 강남지역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진 3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2차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3번 확진자가 신종 코로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귀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2일부터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름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상에도 23일과 24일 강남 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로 언론에서 실제 사용한 혐오 조장 표현을 중심으로 제공했으며, 다른 실험 자극물 역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자극물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면서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본 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실험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을 거쳤다. 사전조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 동안 실시됐으며 대상은 서울 소재 S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부생 38명과 대학원생 21명으로 총 59명이었다. 사전조사는 본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일부는 대면),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일반 질문은 제외하고 실험자극물에 대한 혐오 조장과 이용자 효과 문항에만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본 조사와 동일하게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했다. 그 결과, ‘초기 지역 전파를 일으킨 3번째 확진자’ 기사에 의한 혐오 조장( $M=6.36$ ,  $SD=.42$ )과 이용자 효과( $M=6.04$ ,  $SD=.46$ ),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기사에 의한 혐오 조장( $M=6.12$ ,  $SD=.60$ )과 이용자 효과( $M=5.78$ ,  $SD=.49$ ), ‘인천 학원강사 슈퍼전파자’ 기사에 의한 혐오 조장( $M=6.41$ ,  $SD=.31$ )과 이용자 효과( $M=6.34$ ,  $SD=.32$ ), ‘이태원 집단감염’ 기사에 의한 혐오 조장( $M=5.98$ ,  $SD=.67$ )과 이용자 효과( $M=5.87$ ,  $SD=.64$ )가 모두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실험 처치물이 유효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본 조사는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이루어졌다. 표본은 주민등록통계(2020년 7월)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에 따라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대답한 13개의 설문 결과를 제외하여 총 987개의 유효표본이 확보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이다. 응답자는 여성 496명(50.3%), 남성 491명(49.7%)이고, 18~29세가 180명(18.2%), 30대가 157명(15.9%), 40대가 188명(19.0%), 50대가 194명(19.7%), 60대 이상이 268명(27.2%)이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전체 4개의 실험자극물이 모두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혐오 조장과 이용자 효과라는 두 종속변인은 혐오 조장 표현에 대한 인식적인 차원에서 태도 및 행동적 차원으로 이어지는 효과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혐오 조장 표현을 접한 이용자들의 혐오 조장과 이용자 효과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 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와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전체적인 평균과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와 차이 등을 앞선 통계분석 결과와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 4. 연구결과

### 1) 혐오 조장 표현(통제가능성/책임귀인)에 의한 이용자의 혐오 조장

집단 간 혐오 조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Validation of Influence on the Results of Hate Inducing

Manipu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F	p	Eta <sup>2</sup>	Observed Power
Group	Awareness of Discrimination	F=137.799	195.460	.000	.036	1.000
	Emotion of Hate		274.184	.000	.050	1.000

다변량분산분석 실시 결과, wilks lambda의 F값이 137.799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혐오 조장에는 종합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종속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른 '차별 인식'은 F값이 195.460( $df=3$ ,  $p=.000$ )으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따라서 집단 간 '차별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집단에 따른 '혐오 감정'은 F값이 274.184( $df=3$ ,  $p=.000$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따라서 집단 간 '혐오 감정'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분에타제곱값과 관측 검정력을 살펴본 결과,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은 각각 .036과 .05를 나타내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관측 검정력이 모두 1.000으로 크게 나타나, 그 효과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sup>15)</sup>

개별 종속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므로 각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집단에 따른 '차별 인식'을 사후검증한 결과,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간에는 유의확률이 .4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나머지 집단들 간에는 모두 통

15)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경우 관측 검정력은 의미가 없지만,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경우 관측 검정력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관측 검정력이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에서 재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야하고(MyungHoe Huh, 2014), 부분에타제곱값이 적더라도 관측 검정력을 통해서 변인들의 효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보영·권상희, 2018)

Table 4. Post Hoc Tests of the Results of Hate Inducing

Dependent Variable	Manipulated variables	Low controllability-Person	Low controllability-Group	High controllability-Person	High controllability-Group
Awareness of Discrimination	Low controllability-Person		.000	.000	.000
	Low controllability-Group	.000		.405	.000
	High controllability-Person	.000	.405		.000
	High controllability-Group	.000	.000	.000	
Emotion of Hate	Low controllability-Person		.000	.000	.000
	Low controllability-Group	.000		.985	.000
	High controllability-Person	.000	.985		.000
	High controllability-Group	.000	.000	.000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낮음-집단'이 유의미하여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책임귀인이 차별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개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제가능성 역시 책임귀인이 개인일 때 해당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그리고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은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이를 통해 특정 변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집단 간 '혐오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간에만 유의확률이 .985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낮음-집단', 그리고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개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의 영향력이 '혐오 감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혐오 조장의 경우, 대부분의 조작된 자극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 조작된 자극물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작변인별 혐오 조장 결과는 다음 <Table 5>과 같다.

Table 5. Results of Frequencies on user's Hate Inducing (N= 987)

Manipu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Emotion of Hate
Low controllability / Person	M=5.27 (SD=1.499)	M=5.29 (SD=1.464)
Low controllability / Group	M=5.94 (SD=1.327)	M=6.02 (SD=1.255)
High controllability / Person	M=5.89 (SD=1.249)	M=6.01 (SD=1.166)
High controllability / Group	M=5.74 (SD=1.386)	M=5.83 (SD=1.332)

조사결과, 기술통계치에서도 <Table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들에게 혐오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이 확진자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 해당 뉴스의 혐오 조장 표현은 7점 리커트 척도 기준에서 ‘차별 인식’은 평균치 5.27(SD=1.499), ‘혐오 감정’은 5.29(SD=1.464)로 나타났고,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이 감염 집단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 해당 뉴스의 혐오 조장 표현은 ‘차별 인식’이 5.94(SD=1.327), ‘혐오 감정’이 6.02(SD=1.255)의 평균치가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두 경우 모두 ‘차별 인식’보다 ‘혐오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나고,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책임귀인이 개인에게 맞춰져 있을 때보다 집단에게 맞춰져 있을 때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통계치의 패턴은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보였다. 코로나19의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책임귀인이 개인을 향한 경우 ‘차별 인식’의 평균치는 5.89(SD=1.249), ‘혐오 감정’은 6.01(SD=1.166)이었고, 책임귀인이 집단인 경우에는 ‘차별 인식’은 5.74(SD=1.386), ‘혐오 감정’은 5.83(SD=1.332)이었다. 이때에도 앞의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차별 인식’보다 ‘혐오 감정’이 더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앞의 통제가능성이

낮을 때와 달리, 책임귀인이 집단보다 개인을 향하고 있을 때 해당 대상에 대한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하여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혐오가 더 쉽게 조장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책임귀인이 개인일 때보다 집단일 때 혐오 생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앞서 <Table 5>에서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간에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통제 높음-개인’보다 ‘통제 낮음-집단’의 평균치가 모두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과 언론의 책임귀인 설정에 따라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혐오 생성, 즉 해당 대상에 대한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일어나는 정도는 7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모두 평균 5점 이상의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차별 인식’보다 ‘혐오 감정’이 높게 측정되어,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더 높은 단계의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책임귀인이 설정된 경우에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더 높게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 집단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혐오 조장이 더 높았다.

## 2). 혐오 조장 표현(통제가능성/책임귀인)이 미치는 이용자 효과(감정·인식·신뢰·태도·행동)

다음으로 집단 간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 효과(감정·인식·신뢰·태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Validation of Influence on the Results of User Effect

Manipu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F	p	Eta <sup>2</sup>	Observed Power
Group	Emotion and Cognition	F=68.512	159.767	.000	.029	1.000
	Reliability		8.517	.000	.002	.994
	Behavior and Attitude		35.070	.000	.007	1.000



다변량분산분석 실시 결과, wilks lambda의 F값이 68.51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혐오 조장 표현에 따른 이용자 효과에는 종합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른 '감정 및 인식'은 F값이 159.767( $df=3, p=.000$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는 F값이 8.517( $df=3, p=.000$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태도 및 행동' 역시 F값이 35.070( $df=3, p=.000$ )으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 효과 변인들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분메타제공값과 관측 검정력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 효과의 부분메타제공값은 모두 .05를 넘지 않아 낮은 설명력을 보였지만, 관측 검정력의 경우 대체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Table 7. Post Hoc Tests of the Results of User Effect

Dependent Variable	Manipulated variables	Low controllability-Person	Low controllability-Group	High controllability-Person	High controllability-Group
Emotion & Cognition	Low controllability -Person		.000	.000	.000
	Low controllability -Group	.000		.000	.000
	High controllability -Person	.000	.000		.479
	High controllability -Group	.000	.000	.479	
Reliability	Low controllability -Person		.748	.231	.001
	Low controllability -Group	.748		.020	.000
	High controllability -Person	.231	.010		.292
	High controllability -Group	.001	.000	.292	
Behavior & Attitude	Low controllability -Person		.000	.000	.000
	Low controllability -Group	.000		.000	.998
	High controllability -Person	.000	.000		.000
	High controllability -Group	.000	.998	.000	

개별 집단 간 종속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을 살펴보면 '감정 및 인식'의 경우, '통제 높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을 제외하고,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낮음-집단',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개인',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낮음-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감정 및 인식'은 통제가 높은 상황에서는 책임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외에는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신뢰도'는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낮음-집단',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개인', 그리고 '통제 높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태도 및 행동'의 경우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집단' 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태도 및 행동'에서 책임귀인이 집단을 향하고 있을 경우, 통제가능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낮음-집단',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개인', '통제 낮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통제 낮음-집단'과 '통제 높음-개인', '통제 높음-개인'과 '통제 높음-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효과에 대한 집단 간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혐오 조장 표현에 의한 이용자 효과의 경우, 앞서 통계 검증을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 특성을 가진 변인들을 서로 묶어 세 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기술통계치에서는 공통 요인으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도출된 평균 및 표준편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에서 도출된 세부적인 변인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찌증의 즉각적인 감정 반응,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인식, 응답자의 주변에 대한 개별적 신뢰도, 지역 사회와 정부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와 혐오 조장 표현에 대한 행동 변화 등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8. Results of Frequencies on User Effect (N= 987)

Manipu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 and Realization		Reliability		Behavior and Attitude	
	Emotion	Realization	individual reliability	general reliability	Behavior	Attitude
Low controllability -Person	M=5.61 (SD=1.344)		M=5.08 (SD=1.666)		M=3.67 (SD=1.829)	
	M=5.71 (SD=1.276)	M=5.51 (SD=1.401)	M=5.25 (SD=1.575)	M=4.91 (SD=1.735)	M=3.52 (SD=1.917)	M=3.83 (SD=1.723)
Low controllability -Group	M=6.17 (SD=1.165)		M=5.12 (SD=1.696)		M=4.05 (SD=1.929)	
	M=6.28 (SD=1.046)	M=6.07 (SD=1.264)	M=5.33 (SD=1.552)	M=4.90 (SD=1.803)	M=3.70 (SD=1.985)	M=4.41 (SD=1.799)
High controllability -Person	M=6.05 (SD=1.172)		M=5.01 (SD=1.727)		M=4.86 (SD=1.957)	
	M=6.12 (SD=1.126)	M=5.99 (SD=1.212)	M=5.20 (SD=1.586)	M=4.81 (SD=1.837)	M=3.81 (SD=1.988)	M=5.91 (SD=1.925)
High controllability -Group	M=6.01 (SD=1.181)		M=4.94 (SD=1.783)		M=4.05 (SD=1.942)	
	M=6.06 (SD=1.155)	M=5.97 (SD=1.206)	M=5.08 (SD=1.683)	M=4.80 (SD=1.967)	M=3.86 (SD=1.992)	M=4.24 (SD=1.973)

〈Table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이 낮고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이 개인에게 맞춰진 경우,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7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각 차원별 평균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정 및 인식’은 5.61(SD=1.344), ‘신뢰도’는 5.08(SD=1.666), ‘태도 및 행동’은 3.67(SD=1.829)로 감정 및 인식, 신뢰도, 태도 및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5.71(SD=1.276), 해당 상황의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 대상에 대한 판단 인식은 5.51(SD=1.401), 주변에 대한 개인적 신뢰는 5.25(SD=1.575)로 나타나 언론보도의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4.91(SD=1.735), 해당 사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 차원은 3.52(SD=1.917), 혐오표현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3.83(SD=1.723)에 그쳐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낮고 영향력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통제가능성이 낮고 책임귀인이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치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경우 ‘감정 및 인식’은 6.17(SD=1.165), ‘신뢰도’는 5.12(SD=1.696), ‘태도 및 행동’은 4.05(SD=1.929)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경우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의 평균은 6.28(SD=1.046),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 인식은 6.07(SD=1.264), 개별적 신뢰는 5.33(SD=1.552)이었지만, 일반적 신뢰는 4.90(SD=1.803), 태도는 3.70(SD=1.985), 행동은 4.41(SD=1.799)이었다. 즉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이용자 효과의 경우, 감정 및 인식과 개별적 신뢰에 미치는 정도가 일반적 신뢰와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통제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상황의 통제가능성이 높고,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이 개인에게 맞춰진 경우, '감정 및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이 6.05(SD=1.172), '신뢰도'는 5.01(SD=1.727), '태도 및 행동'은 4.86(SD=1.957)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6.12(SD=1.126),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인식은 5.99(SD=1.212), 개별적 신뢰는 5.20(SD=1.586)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 신뢰는 4.81(SD=1.837), 태도적 차원은 3.81(SD=1.9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패턴에서 다소 벗어나, 행동적 차원은 5.91(SD=1.925)로 태도적 차원 평균치와의 차이가 크고, 다소 높게 나타나 같은 요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의 통제가능성이 높고 책임귀인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감정 및 인식'이 6.01(SD=1.181), '신뢰도'가 4.94(SD=1.783), '태도 및 행동'이 4.05(SD=1.9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6.06(SD=1.155),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 인식은 5.97(SD=1.206), 개별적 신뢰는 5.08(SD=1.683)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신뢰는 4.80(SD=1.967), 태도는 3.86(SD=1.992), 행동은 4.24(SD=1.9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 결과를 통해 연구문제 2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정도와 언론보도의 책임귀인에 따른 혐오 조장 표현들이 이용자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 인식, 신뢰,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작된 자극물별로 이용자 효과 요소인 즉각적인 감정 반응, 통제가능성 및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인식, 개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 신뢰와 태도적 차원, 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은 평균치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혐오 조장 표현이 공동체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주변(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대한 신뢰에,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 및 행동적 차원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하는 화, 짜증, 책임귀인, 통제가능성이라는 인식적 차원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모든 자극물별 행동적 차원

의 평균치가 태도적 차원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혐오 조장 표현이 보다 강한 효과인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앞의 조작된 자극물별 이용자의 혐오 조장 결과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집단에 대한 이용자 효과가,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용자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혐오를 지양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코로나19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혐오 조장 표현이 통제가능성 정도와 책임귀인 대상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언론의 혐오 조장 표현은 공통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평균 82%가 넘는, 높은 수준의 혐오 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혐오 감정이 차별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나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로 하여금 강한 부정의 감정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이 각각 혐오 조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책임귀인 대상이 개인보다 집단인 경우,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한편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은 각각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책임귀인이 개인보다 집단을 향하고 있을 때, 혐오 조장 표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혐오 조장 표현이 개인보다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발화자와 대상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완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추가적인 해석을 요한다. 즉 책임귀인이 집단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차별 인식과 혐오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통상 특정 쟁점에 도덕적 차원의 틀을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양승찬, 2002),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해당 쟁점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로 확산되자 사회 각 층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sup>16)</sup> 이러한 도덕적 틀을 적용하

---

16) 김희진(2020. 5. 14.),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중지가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_d=20200514145102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_d=202005141451021&code=940100).

여 이들에 대한 혐오를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덕적 틀이 적용되지 않는 종교집단 사례를 통제가능성이 높은 조건으로 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표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혐오 조장 표현이 미치는 이용자의 감정·인식·신뢰·태도·행동에의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은 앞서 살펴본 혐오 조장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혐오 조장 표현이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영향력 정도는 감정 및 인식, 신뢰도, 태도 및 행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감정 및 인식은 85%, 신뢰도는 72%, 태도 및 행동은 59%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 효과의 6개 세부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함께 살펴본 결과, 같은 요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향력 정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혐오 조장 표현이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주변인 및 주변 상황에 대한 신뢰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혐오 조장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태도 및 행동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라고 인식되는 행동적 차원의 평균치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가 대상에 대한 또 다른 혐오표현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언론의 혐오 조장 표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코로나19를 다룬 언론보도 내 혐오 조장 표현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검토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일회성의 조작된 자극물의 혐오 조장 표현에 대해서 혐오가 생성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해당 상황과 사안에 대한 태도에도 유효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뉴스의 책임귀인에 대한 혐오 조장 표현에 동의하거나 직접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행동적 차원의 영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표현들이 혐오를 확산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증명하게 되었다. 사실 연구 과정에서는 자극물을 응답자 개개인에게 일회적으로 제공하여 결과를 도출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접할 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혐오 조장 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주변인들과의 공유를 통해 공감이나 동조를 더하여 혐오를 증폭시켜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원으로서 언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러한 점은 언론의 역할에 보다 엄중한 책임성을 부과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응답자

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의 팬데믹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미디어로 기성 지상파 방송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987명을 기준으로 중복응답을 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 이용하는 뉴스 매체가 방송뉴스(49.8%), 포털사이트(42.4%), SNS(3.1%), 신문사(1.0%) 순으로 이어졌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방송뉴스가 66.5%로 현저히 높았으며, 방송뉴스만큼 이용률이 높았던 포털사이트는 21.5%에 그쳤고, 그 외 SNS는 2.1%, 신문사는 3.4%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여타 방송사들의 이용률과 신뢰도가 한 자릿수에 그친 가운데, 방송뉴스 중에서도 공영방송으로 대표되는 KBS의 이용률이 54.2%, 신뢰도는 49.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매체·다채널 환경 속에서 정보의 창구는 늘어났지만,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매체로는 여전히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따라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공영방송 뉴스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높기에 그에 따른 엄격한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한 보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저널리즘 원칙 준수의 필요성은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혐오 조장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논하는 연구들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박현아·이재진, 2019; 유의선, 2019; 윤성욱, 2019; 최란, 2018), 반카칭성이 인정되는 혐오표현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정 조건하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만(이상경, 2015),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가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며 자칫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홍성수, 2019), 규제보다는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 및 강화를 통한 자정적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는 여전히 진단 및 방역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책임귀인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 경쟁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코로나19 보도준칙'이라고까지 일컫어 지는 '감염병 보도준칙'에서 혐오 조장 표현의 자제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조의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의 기준만을 마련하여 혐오 조장 표현에 대한 주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언론보도가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방역망을 위협했다는 비판 속에서 제정된 감염병 보도준칙은 개별 기자나 언론사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보도준칙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공론화와 제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에서는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속보 또는 화제성 뉴스를 통해 주목을 끌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협치를 위협하고 있는 혐오는 재난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 더욱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번 신종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어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 데에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기자 및 언론사들이 혐오 조장 표현의 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한데, 가령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시 말해 감염병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발병 초기보다 혐오 조장 표현에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하고, 도덕적 틀이 적용되지 않는 이슈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책임귀인 틀로 적용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향후 보도준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론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도덕적 틀이 적용될 경우 이용자들의 혐오 인식 및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은, 혐오표현 문제를 반드시 규제의 수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 등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에 수행된 연구로 유동적인 감염병 전파 상황들이 응답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도덕적 틀 등과 같은 이슈의 속성들 때문에 통제가능성과 책임귀인이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 기간 및 대상이 보완된 연구 수행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References

- Allen, J. J., Anderson, C. A., & Bushman, B. J. (2018).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9, 75-80.
- Bennett, T. (1982). *Theories of the Media, Theories of Society*. London: Routledge.
- Chang, S. Y., (2017).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hatred : focusing on the cases of Ilbe and Megal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S. Y., Kim J. C., Lee, S. H., & Yoon J. H.,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ate Speech Regulation on the Internet* (KCSC 2016-006). Seoul: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Cho, Y. Y., IM, Y. H., & Heo, Y. C., (2016). The Third-Person Effects of Online Hate Comm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9(5), 165-195.
- Choe, S. Y., Kim, H. S., (2002). A Study of Negativism in Newspaper Repor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8(1), 158-197.
- Choi, R., (2018).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4(2), 47-86.
- Chong, E. R., Choi J. S., & Park, Y. J.,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Fact-Checking and Explanatory News on COVID-19: Focusing on Contextuality and Transparenc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7(3), 139-193.
- Chung, D. Y., (2018). Hate Expression and the Democracy. *Kookmin Law Review*, 31(2), 123-164.
- Coombs, W. T. (2007). Protecting organization reputations during a cris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Corporate Reputation Review*, 10(3), 163-176.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ng, B. Y., Kweon S. H. (2018). A Study of the Effects of Cancer-Related News Frames on Cognitive Attitude, Emotional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 In Application of Construal Level Theor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6), 5-59.
- Geise, M.L. (1987). *The Language of Politics*. New York: Springer-Verlag.
- Hall, S.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Bennett, T., Curran, J., et al. (eds) *Culture, Media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59-90.
- Han, H. J., Shin, J. A., Ryu, M. H., Lee, S. H., Lee, J. Y., Cho, S. M., Moon, Y. J., & Seol, J. E., (2019). Representations of Chosun-jok in Korean TV Dramas and Chosun-jok's Reception of the

- Representations.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18(1), 227-262.
- Han S. J., Yoo, H. S., (2016). The Effects of Types of Responsibility Frames and Peril Attributes in News Reports Related to the Mentally Ill Criminal on the Social Stigma Effects.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15(2), 42-76.
- Hartely, J. (1982). *Understanding News*. London: Routledge.
- Hong, J. A., (2017). The Study of the Media's Method of Reenacting Gender Based Violenc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3), 186-218.
- Hong, J. H., Na, E. K., (2016). Online Hate Speech Diffusion Network Analysis : Issue-Specific Diffusion Patterns, Types and Intensity of Verbal Expression on Online Hatred.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145-175.
- Hong, S. I., Kim, M. J., Kim, S. A., & Lee, D. H., (2020). Meta-analysis of Hate Speech in Communication Studies: Focusing on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Selected in the KCI(Korean Citation Index) in the 2010s. *Media, Gender & Culture*, 35(1), 45-102.
- Hong, S. S., Kim, J. H., No, J. S., (2016). *A Study on Hate Expression and Regulatory Measures* (Publishing registration No. 11-1620000-000633-01).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Hong, S. S., (2019). The Harm in Hate Speech and Justification of Regulation: beyond prohibition and non-prohibition.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2(3), 27-64.
- Jeong, I. K., (2010). A Trend Analysis of the Metro Sections of News Media in Korea during 1998 and 2009.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50(2), 143-163.
- Jung, S. Y., Lee, Y. J., (2015). Making a Civil War Surrounding History in Cyber Space : Focused on 5·18 Discourses in <Ilb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1(3), 116-154.
- Kim, C. J., (2019). News message's effects on outgroup derogation toward immigrant foreigners : Comparison between threat message and benevolent messag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5), 31-60.
- Kim, B. C. (2019). Influence of News Reports about MERS on MER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7(1), 207-224.
- Kim, B. C. (2020).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s of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s' on Audience's Languag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4), 5-41.
- Kim, B. K., (2015).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bout MERS. *Korean Language Research*, 38, 47-76.

- Kim, H., Son, B. W., (2020). Competition and Coexistence toward the Discourses on Misogyny : Based on Kim Ji-Young, Born 1982.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3, 83-111.
- Kim, H. S., (1998).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elevision News Debate: Focusing on the News Frame of the Gold Collection Campaig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Research*, Summer, 138-163.
- Kim, J. H. (2019). *A good discriminator*. Seoul: Changbi.
- Kim, J. S., Youn S. M., (2019). How does Hate Speech become a Busines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 Focusing on a Talk/Camcorder Genre Broadcast on YouTube and Afreeca TV.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3), 45-79.
- Kim, K. H., Cho, Y. H., Choi, E. K., Shim, M. S., Chang, D. H., & Jeong, J. Y., (2018). *Study on online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misogyny* (Publishing registration No. 11-1620000-000714-01).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Kim, K. H., Cho, Y. H., & Bae, J. A. (2020). Exploratory Study on Countering Internet Hate Speech : Focusing on Case Study of Exposure to Internet Hate Speech and Experts' in-depth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 499-510.
- Kim, M. J., (2020). Regulating Hate Speech on Social Media Platforms.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32(1), 7-54.
- Kim, S. A.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 Kim, S. A. (2019). Hate and violence in online. G. Kim (Eds.), *Feminism classroom* (pp. 167-182). Paju: Dolbegae.
- Kim, S. A., Kim, M. J., Lee, D. H., & Hong, S. I., (2020). Regulatory Issues and Alternatives of Online Hate Speech.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203-230.
- Kim, T. J., (2020). COVID-19 New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457-466.
- Kim, Y., (2016). An Essay on Korean Media's Coverag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Korean J Health Commun*, 11(1), 39-50.
- Koh, H. S. (2019). ISP's liability for Onlin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Contents.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5(1), 1-55.
- Kwon, S. H., (2016, April). Comparison of Media's MERS coverage frame by Chosun Ilbo and Hankyore Newspape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Lee, G. O., (2015). The press, the information carrier, the watchdog. *Kwanhun Journal*, 136, 29-38.
- Lee, J. N., (2019). Legal definition of hate expressions and criteria for the limitation of hate expressions. *Journal of Law*, 30(1), 335-360.
- Lee, J. Y., (2015). Study on Hate Speech fro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with Focus on Incitement to Hatr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0(3), 195-227.
- Lee, J. H., (200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Language used in Korea Newspap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6, 323-363.
- Lee, S. H., Lee, J. I., Jung, G. J., Cho, H. I., Han, S. H., & Hong, S. S., (2019). *Hate Speech Report* (Publishing registration No. 11-1620000-000738-01).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Lee, S. K., (2015). A Stud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Constitutional Law*, 21(4), 197-239.
- Lee, S. S.,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Hate Speech due to Remarks of Public Figur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8(2), 107-146.
- Lee, S. Y., Yoon, J. S., Chang, H. K., & Kim, S. A., (2018). *Measures to regulate sexist hate speech* (2018 Research report No. 06).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ts, L. (2002). Experiencing hate speec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anti-Semitism and antigay speech,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41-361.
- Lim, G. H., (2003). Linguistic Analysis of Foreign Language Paper Names in Korean Newspap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1), 193-214.
- Mullen, B., & Smyth, J. M. (2004). Immigrant suicide rates as a function of ethnophaulisms: Hate speech predicts death. *Psychosomatic Medicine*, 66, 343-348.
- MyungHoe Huh (2014). Reproducibility of Hypothesis Testing and Confidence Interval,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7(4), 645-653.
- Näsi, M., Räsänen, P., Hawdon, J., Holkeri, E., Oksanen, A. (2015). Exposure to online hate material and social trust among Finishyouth,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3), 607-622.
- Oh, Y. K., Ryu, H. S., Huh, J. Y., Kim, H. Y., & Kim, D. H., (2020).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isaster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in Covid-19 Cases* (KIPA No. 87). Seoul: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Park, A. R., (2020, September).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exp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f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Seoul.

- Park, H. A., Lee, J. J., (2019). Regulation possibility of the hate speech in online game spa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8(2), 225-263.
- Park, H. Y., (2015).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Public Law Journal*, 16(3), 137-169.
- Park, J. 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rona19' News Frame Based on Ideological Orientation of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4), 40-85.
- Park, K. S., (2016). A Study on the News Frame of Epidemic Diseases. *Korean Semantics*, 52, 1-29.
- Park, M. S., Chu, J. H., (2017). *The State of Hate Speech and The Response Measures* (Research paper No. 17-AA-03). Seoul: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 Park, S. H., (2019).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Kookmin Law Review*, 31(3), 45-88.
- Park, Y. S., (2018).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regarding the Hate Speech. *Chonnam Law Review*, 38(2), 27-64.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yo, S. Y., (2020). Frame Analysis of Corona-19 News on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Focused on KBS <News 9>.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112-122.
- Son, D. I., (2020). A Study on the Expressions Used in COVID-19 News: Focusing on Fear and Hate Reflected in Headlines. *Journal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1, 137-166.
- Soral, Bilewicz, & Winiewski (2017). Exposure to hate speech increases prejudice through desensitization. *Aggressive Behavior*, (44), 136-146.
- Treichler, P. A. (1988). *AIDS, homophobia, and biomedical discourse: An Epidemic of signification*. D. Crimp (Eds.), *AIDS: Cultural analysis, cultural activism*(pp.31-70).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Weiner, B. (2006). *Social motivation, justice, and the moral emotions: An attribution approa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Yang, H. S., (2018). Hate speech toward specific reg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6), 7-36.
- Yang, S. C., (2002). The Influence of Media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newspapers and broadcasts*, 1, 53-59.

- Ybarra, ML., Diener-West, M, Markow, D., Leaf, PJ., Hamburger, M., & Boxer, P. (2008). Linkages between internet and other media violence with seriously violent behavior by youth, *Pediatrics*, 122(5), 929-937.
- Yoo, E. S., (2019).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Pro-regulatory and Restrictive Regulatory Approache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8(2), 193-224.
- Yoon, S. O., (2019). A Study on Regulating Hate Speech and Legal Issues.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5(1), 57-94.
- Bae, M. W. (2020. May 19). "Corona 19's Hate Spreads, Seoul Government Starts Survey on Hate Expression".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
- BBC (2020. March 4). Corona 19: A confirmed cases who suffering identity theft and hateful comments. *BBC News Korea*,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 Kim, H. J. (2020. May 14). "Stop the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s to protect community safety." by the chairpers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kyunghyang newspape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4145102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41451021&code=940100)
- Lee, M. N. (2020. January 30). "Emergency guidelines to refrain from reporting hateful news of the new Corona infectious disease by Media unions". *PD Journa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61>
- Park, J. S. (2020. May 24). A new infectious disease that has been in vogue for many years... the rise of government role. *Health Korea News*, [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
- Ryu, B. H. (2018. September 7). " [Abhor hatred①] Mom-chung, ddule tac-chung, Han Nam-chung...The Endless Bloom of Evil".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

최초 투고일 2020년 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3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1년 3월 31일

## 부록

- 강보영·권상희 (2018). 암 관련 뉴스 프레임이 인지적 정서적 태도와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32권 6호, 5-59.
- 고홍석 (2019). 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미디어와 인격권>, 5권 1호, 1-55.
- 권신혜 (2016.4).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프레임 비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전북대학교.
- 김경희·조연하·최은경·심미선·장대홍·정지영 (201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14-0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희·조연하·배진아 (2020).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출경험 사례 및 질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499-510.
- 김병철 (2019). 메르스 보도가 메르스 정보 검색행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권 1호, 207-218.
- 김병철 (2020). 언론 보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칭어가 수용자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0권 4호, 5-41.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권 2호, 279-317.
- 김수아 (2019). 혐오와 폭력은 온라인을 타고. 김고연주 (편), <페미니즘교실> (167-182쪽). 파주: 돌베개
- 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203-230.
- 김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39-50.
- 김병건 (2015).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사설의 비판적 담화 분석. <한말연구>, 38호, 47-76.
- 김지수·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권 3호, 45-79.
-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울: 창비.
- 김민정 (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권 1호, 7-54.
- 김찬중 (201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가 혐오에 미치는 효과 연구: 위협 보도와 온정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권 5호, 31-60.

- 김태중 (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5호, 457-466.
- 김현·손병우 (2020).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 소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호, 83-111.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138-163.
- 박건숙 (2016). 전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어 의미학>, 52호, 1-29.
- 박미숙·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총서 17-AA-0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아란 (2020.9).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세미나. 서울: 프레스센터
- 박용숙 (2018).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 38권 2호, 27-64.
- 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권 3호, 45-88.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박혜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권 3호, 137-169.
- 박현아·이제진 (2019).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시론적 연구. <언론과 법>, 18권 2호, 225-263.
- 손달임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호, 137-166.
- 양승찬 (2002).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신문과 방송>, 1호, 53-59.
- 양혜승 (2018). 포털과 지역혐오: 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62권 6호, 7-36.
- 오윤경·류현숙·허준영·김황열·김대훈 (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KIPA-87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유의선 (2019).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 - 규제용어혼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18권 2호, 193-224.
- 윤성욱 (2019).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권 1호, 57-94.
- 이귀옥 (2015). 언론, 정보전달자 넘어 감시견 역할 다해야. <관훈저널>, 136호, 29-38.



- 이상경 (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권 4호, 197-239.
- 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 (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2018 연구보고서-6).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선 (2018).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8권 2호, 107-146.
- 이승현·이준일·정강자·조혜인·한상희·홍성수 (2019). <혐오표현(Hate Speech) 리포트>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38-0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남 (2019).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와 그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법학연구>, 30권 1호, 335-360.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195-227.
- 이주행(2003).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호, 323-363.
- 임규홍(2003). 한국 신문의 외래어 지면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1권 1호, 193-214.
- 장소연 (2017).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권 2호, 123-164.
- 정은령·최지수·박유진 (2020). 코로나19 팩트체크 기사와 해설 기사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맥락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권 3호, 139-193.
- 정수영·이영주 (2015).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사의 내전(內戰)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5.18 언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1(3), 116-154.
- 정일권 (2010). 사회면 기사 분석(1998년~2009년)을 통해 본 뉴스 미디어의 현실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50권 2호, 143-163.
- 조소영·김종철·이승현·윤지훈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KCSC 2016-006).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윤용·임영호·허윤철 (2016).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 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9(5), 165-195.
- 최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권 2호, 47-86.

- 최선열·김학수 (2002). 국회보도의 부정주의 연구. <의정연구>, 8권 1호, 158-197.
- 표시영 (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2호, 112-122.
- 한성준·유홍식 (2016). 뉴스보도의 책임귀인 프레임 유형과 위험 속성이 범죄의 책임소재,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5권 2호, 42-76.
- 한희정·신정아 (2019).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제한 조선족의 수용과 인식. <한국소통학보>, 18권 1호, 227-262.
- 홍성수·김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현·조승미·문유진·설정은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33-0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권 3호, 27-64.
- 홍성일·김민정·김수아·이동후 (2020). 언론학 혐오 연구의 메타 분석: 2010년대 국내 신문방송학 등 제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권 1호, 45-102.
- 홍주현·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145-175.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186-218.
- 김희진 (2020. 5. 14.).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중지가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4145102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41451021&code=940100).
- 류병화 (2018.9.7.). “ [혐오를 혐오한다 ①] 맘충·뜯타충·한남충... 끝없이 피어나는 ‘악의 꽃’ ”.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050)
- 박정식 (2020.5.24.). 수년마다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 정부 역할론 대두. <헬스코라이너스>,[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http://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9631)
- 배민욱 (2020.5.19.). “코로나19시대 혐오도 확산...서울시, 혐오표현 실태조사”,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30)
- BBC (2020.3.4.).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BBC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이미나 (2020.1.30.). “언론노조 ‘신종 코로나’ 혐오 유발 보도 자제 긴급 지침”, 〈PD 저널〉,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61>

##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통제가능성' 정도와 '책임귀인' 대상에 따라 이용자들의 '혐오조장' 및 '이용자 효과'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언론의 혐오 조장 표현은 이용자로 하여금 혐오를 조장하고,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 보도 내 혐오 조장 표현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차별 인식'보다 '혐오 감정'이라는 보다 강한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고 있었고, 이용자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태도' 보다 '행동'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라고 인식되는 차원의 결과치가 더 크게 나타나, 혐오 조장 표현을 접한 이용자들이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동시에 진원지가 되는데, 언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혐오 조장 표현이 '일반적 신뢰'보다 심리적·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주변인 및 주변 상황에 대한 '개별적 신뢰'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혐오 조장 표현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혐오조장'과 '이용자 효과'는 '통제가능성' 정도와 '책임귀인'에 따라 분류된 네 집단 간에 종합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속변인 모두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책임귀인이 '개인'보다 '집단'을 향하고 있을 때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사안에 '도덕적 차원의 틀'이 적용됨으로서 대상에 대한 비난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그에 따른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저널리즘 원칙을 언론 종사자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핵심어** : 감염병 보도, 혐오 조장 표현, 통제가능성, 책임귀인, 보도준칙